

## 역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혁명’ 서사의 변화\*

윤 현 상\*\*

### [초 록]

초기의 교과서에서 ‘혁명’은 서사의 형태로 정권의 지향을 보여주는 한 수단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초반에 동학 - 4·19 - 5·16로 이어지는 ‘혁명’의 서사를 구축하여 5·16을 ‘민주 혁명’의 완결점으로 구성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유신 이후로는 이러한 ‘민주 혁명’의 서사를 내세울 수 없었고, 신진사대부 혁명파 - 동학 - 5·16로 이어지는 ‘군인 혁명’의 서사를 통하여 정당성을 구축하였다. 전두환 정권은 ‘혁명’을 자신의 서사로 사용할 수 없었고, 이에 동학이 혁명에서 탈락한 채 교과서에서 혁명의 서사는 점차 흐려졌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4·19가 교과서에서 유일한 ‘혁명’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민주화의 완성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지만, 정권의 정통성을 ‘혁명’이

---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주제어: 4·19, 5·16, 동학, 민주주의, 혁명 서사  
the April Revolution, May 16 Military Coup, Donghak Revolution,  
Democracy, Narrative of “Revolution”

라는 사건을 통해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의 시도와 일맥상 통하는 경향이 있기도 했다.

한편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여러 세계사 속의 혁명과, 사회주의 용어로의 혁명이 교과서에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4·19 또한 ‘미완의 혁명’으로 정의되었다. 다양한 종류의 ‘혁명’의 등장은, 혁명 자체가 가지는 서사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제2차 교육과정 교과서부터 이어진 혁명의 서사는 이렇게 상실되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혁명’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서사를 넘어 세계사적인 ‘혁명’의 정의에 다가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1. 序言

혁명은 일반적으로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국체(國體) 또는 정체(政體)를 변혁하는 일을 뜻한다.<sup>1)</sup> 20세기 한국의 ‘혁명’ 개념은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해석되곤 했다. 본래 혁명은 전통적으로 역성(易姓)과 개조(開祖)를 의미하였으나, 1910년대 신해혁명과 러시아혁명을 거치며 ‘당대화’ 되었다. 조선의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혁명은 진보, 발전과 연관되었으며, 역사철학적 위엄과 시적 광휘를 둘러 쓴 확고한 이념적 정당성을 가진 용어로 자리매김한다.<sup>2)</sup> 즉 어떤 의미에서 혁명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요구하는 목표를 가리키는 의미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혁명’은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 어휘이자, 동시에 긍정적인 가치가 부여된 ‘전환’을 뜻하는 개념이다.<sup>3)</sup> 2017년의 ‘촛불 혁명’이라는 표

1) 『두산백과』, 「혁명」, (<http://www.doopedia.co.kr>, 검색일: 2018년 1월 8일).

2) 이와 관련해서는 권보드래(2015), 「1910년대 “혁명” — 3·1운동 전야의 개념과 용법을 중심으로」, 『개념과소통』 15, 한림과학원을 참조할 것.

3) 혁명은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체를 변혁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충돌과 저항’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뒤에 살펴보겠지만 혁명은 ‘운동’, ‘항쟁’과 같은 ‘충돌과 저항’의 분류에 속하는 용어들로 대체되기도 하지만, ‘변화와 발전’의 분류에 속

현이 앞으로 바뀌어 나갈 시대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듯이, 지금까지 ‘혁명’으로 불려왔던 혹은 불리고 있는 많은 사건들은 특정한 가치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한국사 교과서에서 ‘혁명’의 변천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한국사 교과서는 당대 역사 연구의 집약(集約)이라는 점에서 한국사 연구자의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국정과 검정을 막론하고, 집권 세력이 국민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들을 선별하고 이를 표준으로 삼아 서술하는 ‘통사(通史)’라는 점에서 당대 정부의 지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국민 일반에게 교육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한국 사회 일반에 보급되기도 한다. 때문에 교과서에서 ‘혁명’이라는 개념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은, 국가가 어떠한 사건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맥락화하여 파악하려 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사에서 특정 개념의 변전(變轉)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번 기획에서, 교과서에서 ‘혁명’의 의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해방 이후 한국 정부가 국민에게 보급하려고 했던 지향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일단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교과서의 집필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의 변천에 대한 연구<sup>4)</sup>도 활발히 이루어졌

---

하는 ‘개혁’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코젤렉 또한 개념사 사전에서 개혁과 혁명을 함께 비교하며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혁명을 ‘충돌과 저항’을 통한 ‘변화와 발전’을 담보하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한국사 교과서 속에 등장하는 개념들의 분류 및 그 변동과 추이에 관해서는 본 특집에 함께 실린 허수(2018), 「언어 네트워크 연구를 통해 본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인식 — 내재적 발전론의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5-1,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원을 참조할 수 있다.

4) 교육과정 변천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다종다양하지만, 그 중 이 글에서 주로 참고한 것은 다음과 같다. 최상훈(2005), 「역사과 교육과정 60년의 변천과 진로」, 『사회과 교육연구』 12-2,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강선주(2006), 「해방 이후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둘러싼 쟁점」, 『歷史教育』 97, 歷史教育研究會; 류승렬(1996), 「해방 후 교육과정 변천과 역사교과서의 위치」, 『歷史教育』 60, 歷史教育研究會; 조건(2017),

고, 특정 주제에 대한 서술 또는 서술 상의 변천에 관한 연구<sup>5)</sup>도 다수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특정 사건이 어떤 용어로 지칭되었고 이것이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망라하는 이 글과는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

혁명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코젤렉은 ‘개혁’에 대한 개념사 연구에서 ‘혁명’을 함께 다룬 바 있고,<sup>6)</sup> 국내에서도 혁명 개념에 대하여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다.<sup>7)</sup> 나아가 각각의 사건이 ‘혁명’이란 정의에 적합한지를 따지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sup>8)</sup> 또한

「제2차 교육과정기 민족주체성 교육의 시행과 국사교과서 근현대사 서술 내용 분석」, 『역사와교육』 24,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조성운(2017), 「제2차 교육과정의 제정과 국사교과서의 편찬」, 『한국사학보』 66, 고려사학회; 조성운(2015), 「반공주의적 한국사 교육의 성립과 강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허동현(2005),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개화기 관련 서술에 보이는 문제점과 제언 — 7차교육과정 「국사교육 내용 전개」의 준거안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5) 이 글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는 주로 ‘동학’에 대한 서술에 집중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김태웅(2015), 「해방 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1894년 농민전쟁 서술의 변천」, 『歷史教育』133, 歷史教育硏究會; 서인원(2014), 「동학농민운동의 한국사 교과서 서술 내용 분석 — 제1차~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승실사학』 32, 승실사학회; 조성운(2014), 「2011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동학농민운동 서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조규태(201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동학·천도교 서술 검토」, 『동국사학』 51, 동국사학회; 김양식(2012),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역사교과서 서술 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동학학보』 24, 동학학회; 이수용(1990), 「韓國近代 變革運動研究의 動向과 「국사」 教科書의 敘述」, 『歷史教育』 47, 歷史教育硏究會.
- 6) 아이케 불가스트 지움(2014), 라인하르트 코젤렉, 오토 브루너, 베르너 콘체 엮음, 백승중 옮김,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8: 개혁과 (종교) 개혁』, 서울: 푸른역사.
- 7) 한용희(1968), 「革命의 本質과 類型」, 『(淑明女子大學校) 論文集』, 淑明女子大學校; 노명식(1989), 「혁명의 개념」, 『서양사론』 33, 한국서양사학회; 길윤미, 문경자(2014), 「『혁명』의 개념 변화에 관한 고찰」, 『동서인문』 2,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 8) 서중석(1997), 「1960년 4월 혁명 개념 소고」, 『성대사림』 12-13, 成均館大學校史學會; 김영명(2017), 「4·19의 성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9,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중일 3국의 역사교과서에서 민주주의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비교 분석하면서 ‘혁명’과 관련하여 해석한 연구도 있다.<sup>9)</sup> 이들 연구는 개념의 정의 혹은 개별 사건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한국사 속에서 이들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연구는 아니었다. 이런 문제의식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역대 한국사 교과서에서 ‘혁명’이 어디에 사용되고,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 서술에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끼치곤 한다. 연구의 진전에 따라 교과서 서술이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니와, 교과서를 서술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혹은 정권의 요구에 따라 교과서 서술이 변화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요소도 반영하려고 노력하되, 이 글에서는 ‘정권의 요구’라는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서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의 편찬은 교육과정의 강한 제약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역사교과의 변천 배경과 의미 또한 정권의 의도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sup>10)</sup>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한사항 속에서, 제1차~2011 개정 한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혁명’이 시기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가를 계량적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변화 양상을 ‘혁명’ 서사의 형성과 변동이라는 흐름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9) 유용태(2014), 「역사교과서 속의 민주주의: 한중일 3국 비교」, 『歷史教育』 132, 歷史教育硏究會.

10) 이에 대해서는 류승렬(1996)을 참조할 것. 교과서의 경우 국정 시기에는 집필자도 정권에서 선정하고 내용도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검정 시기에도 세세한 교육과정을 통해 집필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혁명’ 개념은 정치적 수사로써 사용되곤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이 ‘혁명’ 서사의 파악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본다.

## 2. 계량적으로 본 교과서의 ‘혁명’

해방 이후, 교과서에서 ‘혁명’은 어떠한 용법으로 사용되었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교과서에서 ‘혁명’이라는 어휘가 얼마나 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혁명의 등장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혁명’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교과서에서 중요하고 빈번하게 다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다룰 교과서의 양적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교과서를 선정하고 이를 데이터화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분석 자료로는 제1차 교육과정부터 2011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는 고등학교 한국사(舊 국사) 교과서 중 일부를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우선 제1차, 제2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경우 검정 체제였기 때문에 여러 종의 교과서가 존재한다. 그러나 데이터화의 여건 상 불가피하게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 1종의 교과서만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sup>11)</sup> 또한 제3차부터 제7차 국정 국사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제7차 검정 근현대사 교과서와 2011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는 금성출판사 본을 사용하였다.<sup>12)</sup> 제7차

11)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http://contents.history.go.kr>)에서는 제1차 검정 교과서 중 홍이섭 지음의 『우리 나라 문화사(고등 국사)』, 1957년판을, 제2차 검정 교과서 중에서는 문교부 지음, 『국사』, 1968년판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념사 연구 방법의 한 방법으로 형태소 분석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혁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량화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텍스트 파일을 제공하는 상기 각 1종의 교과서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12) 역시 검정이었던 제7차 근현대사 교과서와 2011 개정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각 1종의 교과서만 선정한 것은 계량적 분석을 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음을 밝힌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 급하게 편성, 실행된 교육과정으로 출간된 교과서였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도 1년 밖에 사용되지 않고 바로 2011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교육과정에서는 전근대시기를 중심으로 서술한 국정 『국사』와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서술한 검정 『한국근현대사』가 함께 발간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분석을 하기 위하여 국정 『국사』와 검정 『한국근현대사』(금성출판사 본)를 임의로 통합하여 분석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sup>13)</sup>

[표 1] 역대 교과서에서 ‘혁명’이 등장하는 횟수

	선사	고대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개항기	일제 시기	현대	합계
제1차									0
제2차				1		8		8	17
제3차				6	1	9	1	17	34
제4차				7	1	1	1	14	24
제5차				6	2	1	2	9	20
제6차	1		1	5	6	1	4	13	31
제7차	1			3	11	2	31	26	74
2011				2		1	25	9	37
합계	2	0	1	30	21	23	64	96	237

13) 이하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각 교과서를 다음과 같이 칭하기로 한다. 또한 각각의 교과서가 출간된 교육과정을 제1차 교육과정 등으로 칭하였다.

명칭	교과서 서지 사항	명칭	교과서 서지 사항
제1차 교과서	홍이섭(1957), 『우리 나라 문화사(고등 국사)』	제5차 교과서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편(1990), 고등학교 『국사 (상)』 上同(1990), 고등학교 『국사 (하)』
제2차 교과서	문교부(1968), 고등학교 『국사』	제6차 교과서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편(1996), 고등학교 『국사 (상)』 上同(1996), 고등학교 『국사 (하)』
제3차 교과서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편(1979), 고등학교 『국사』	제7차 교과서	국사편찬위원회,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2006), 고등학교 『국사』 김한중 외(2003),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제4차 교과서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편(1982), 고등학교 『국사 (상)』 上同(1982), 고등학교 『국사 (하)』	2011 개정 교과서	김종수 외(2014), 고등학교 『한국사』, 금성출판사

[표 1]은 제1차~2011 개정 교과서에서 혁명이 등장하는 횟수를 보여 준다. 역대 교과서에서 ‘혁명’이 등장하는 횟수는 평균 29.5회이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로 74회 등장한다. 그러나 제7차 교과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국정 국사와 김정 근현대사(금성교과서)를 통합하여 측정한 수이기 때문에, 등장 횟수의 도드라짐이 커 보일 수 있다.<sup>14)</sup> 그 밖에도 각 차수의 교과서들은 모두 그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과서의 분량을 감안한 상대 비율을 살펴 보아야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형태소 10,000당 혁명의 등장 횟수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교과서별 10,000 형태소당 ‘혁명’의 등장 횟수(상대량)

교육과정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2011
등장횟수	0	2.84	3.17	2.03	1.35	1.79	3.84	3.26

[표 1]과 [표 2]를 통하여 제1차 교과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던 ‘혁명’은 제3차 교과서에서 일차로 정점을 찍은 후 제4차와 제5차에 이어지는 과정에서 절반 이하의 빈도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제6차에서 약간 반등하였고, 제7차 교과서에서 급증하여 최고치를 찍은 후 2011 개정에서 약간 감소하고 있다. 시대별로 등장 횟수를 살펴보면, 조선전기와 현대에는 꾸준히 등장하고 있으며, 개항기에는 제2차, 제3차 교과서에서 8~9회 등장하였다가 이후 1회 가량으로 그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 반면 일제시기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다가 제7차 교과서에서부터 갑작스럽게 다수 사용되고 있다.

14) 참고로 제1차~2011 교육과정의 전체 데이터량은 다음과 같다. 이때 데이터량은 형태소 개수를 의미한다. 형태소 분석 작업은 코모란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여 실행하였고, 이를 일부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힌다.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2011
데이터량	57,789	59,963	107,243	118,327	148,668	172,887	189,988	113,572



그렇다면 각각의 교과서에서 ‘혁명’은 어떤 대상을 지칭하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 1]에서 숫자로 등장하는 ‘혁명’의 등장 내역을 각 교육과정 교과서별로 보다 상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 3. ‘민주 혁명’ 서사의 구축과 5·16 ‘혁명’:

#### 제2차~제3차 교과서 시기

우선 최초로 ‘혁명’이 등장한 제2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살펴보자. 제2차 교과서에서는 조선전기에 ‘역성혁명’이라는 용어로 1회 등장하였으며, 개항기에 쓰인 8회는 모두 ‘동학’을 지칭하고 있다. 현대사에서는 4·19를 지칭하는 용어로 2회, 5·16과 관련하여 5회 등장하였다. ‘혁명’이 등장하는 문장을 모두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제2차 교과서에 등장한 ‘혁명’과 그 내용

지칭대상	쪽	내용
역성혁명	82	조선 왕조의 개창은 역성혁명에 의한 왕조의 교체에 불과하여, 사회 구조의 본질적인 변혁은 없었다.
동학	144	1894년, 고부 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반항하여 일어난 고부 관아 습격 사건을 계기로 동학 혁명 운동이 폭발되었다.
동학	144	전봉준의 영도 아래 벌어진 고부의 소란은 민요에 지나지 않았지만, 정부의 부당한 수습 방안에 분격한 동학 교도들의 3월 기포는 제폭 구민, 보국 안민을 내세운 동학 혁명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동학	144	혁명 운동은 충청, 전라도로 파급되어 동학군은 황토현에서 관군을 격파하였으며, 전주를 점령하고 전라, 충청 각지를 장악하였다.

지칭대상	쪽	내용
동학	144	비록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하나, 동학 혁명 운동은 여러 모로 중대한 의의를 지녔다.
동학	144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농민 혁명 운동이었으며, 백성들에 의한 국가 모순 타개 운동이 동학교와 결부되어 일어났던 것이다.
동학	145	그러나, 혁명을 영도해 나갈 근대적 지도층이 형성되지 못하였고, 밖으로 청·일 양국 군의 간섭으로 마침내 뜻대로 되지 못하였다.
동학	145	동학 혁명 운동 발생의 역사적 바탕은 사회 모순과 정치 문란이었다.
동학	147	동학 혁명 운동은 날카로운 대립을 보여 오던 청·일의 열전을 초래하였다.
4·19	191	4월 의거는 기미 독립 운동, 광주 학생 운동에서 발휘되었던 우리 학생들의 구국 정신이 다시금 내외에 과시된 운동이었으며, 또한 불의와 독재에 대하여 맨주먹으로 싸워 이긴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중 혁명이었다.
4·19	191	그러나, 혁명 뒷수습을 담당한 과도 정부의 관리하에 실시된 총선거를 거쳐 새로 구성된 제2공화국의 집권 세력은 국민이 기대하는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5·16	192	4월 의거 이후 민주적 안정 세력이 자리잡히지 못함으로써 사회의 혼란과 불안이 증대되는 가운데 38°선 이북의 공산 세력의 야심이 꿈틀거리게 되자, 파쟁과 혼란을 일소하고 공산 침략에서 국가와 민족을 건지기 위하여 일어난 것이 5·16 혁명이었다.
5·16	192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한 청년 장교들은 혁명을 단행하였다.
5·16	192	이것이 5·16 혁명으로, 이 혁명은 4·19 의거의 계승이었으며 발전이었다.
5·16	192	혁명 정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조직하여 군정을 펴며, 국민 앞에 6대 공약을 제시하고 국정 개혁, 사회 기풍 쇄신, 조국 방위에 매진하게 되었다.
우리의 사명	194	우리는 민주 대한의 건설을 위하여 피를 흘렸고, 혁명을 거듭하는 시련과 고난을 겪었다.

이를 살펴보면 조선시대에 유일하게 쓰인 역성혁명에 대해서, “역성혁명에 의한 왕조의 교체에 불과하여, 사회 구조의 본질적인 변혁은 없었다”라고<sup>15)</sup> 서술하여 그 의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동학에 관한 서술에서는 ‘동학 혁명 운동’ 혹은 ‘농민 혁명 운동’으로 지칭하면서, “동학 혁명 운동은 여러 모로 중대한 의의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있다.<sup>16)</sup> 또한 현대사 부분에서는 ‘4월 의거’를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중 혁명”이라고 정의하며, 혁명의 뒷수습을 맡은 과도 정부가 국민이 기대하는 소임을 하지 못하는 와중에 혼란이 증대되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5·16 혁명’이 일어났음을 밝히고 있다.<sup>17)</sup>

이러한 ‘혁명’의 배치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이는 제2차 교과서의 종장(終章)인 “우리의 사명”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이 장에서는 우리의 사명을 국토 통일의 완수, 민주 대한의 건설, 조국 근대화의 성취, 경제 자립의 달성, 세계 평화에의 공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서, 그중 두 번째인 민주 대한의 건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 대한의 건설을 위하여 피를 흘렸고, **혁명을 거듭하는 시련과 고난**을 겪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은 민주주의만이 만인의 자유 평등과 창조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세계사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거니와, 오랜 우리 역사를 볼 때 영명한 군주에 의한 민본 정치 하에서 문화가 발달되고 생활의 안정을 얻은 때가 있었으나, 그것은 **군주를 중심한 소수 지도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성과이며, 또한 그 혜택이 대부분 그들의 것이었음을** 상기할 때, 온 민족의 창의적 활동이 보장되는 사회 체제야말로 발전의 사회이며 …… (강조는 필자)”<sup>18)</sup>

15) 문교부(1968), (제2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p. 82.

16) 문교부(1968), p. 144.

17) 문교부(1968), pp. 191-192.

18) 문교부(1968), p. 194.

위의 인용문에서는 혁명에 대한 제2차 교과서의 시각을 볼 수 있다. 군주정에서의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역성혁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연결되며, ‘혁명을 거듭’하는 시련과 고난은 동학 - 4·19 - 5·16으로 이어지는 혁명의 완성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혁명의 순차적 배치와 그 완성으로써의 5·16의 배치는, 5·16의 정당성을 역사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작업이었다. 동학을 혁명으로 승격시켜 혁명의 전사(前史)로써 자리매김하고,<sup>19)</sup> 4·19 의거 또한 혁명 운동의 결핍된 형태로 위치지음으로써, 보다 온전한 혁명으로써의 5·16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제2차 교과서의 ‘혁명’ 인식은 5·16 이후 박정희 정권의 역사 인식과도 일맥상통한다. 1962년 출간된 박정희 저작의 『우리민족의 나갈 길』에서는 동학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동학은 화랑도 등 민족정신을 계승한 주체적 사상으로서 그 후 3·1운동, 4·19, 5·16의 한국민주혁명의 밑바닥을 흐르고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sup>20)</sup> 같은 해의 4·19 기념사에서 “5·16 혁명은 4·19 의거의 연장이며, 조국을 위기에서 구출하고 멸공과 민주 수호로써 국가를 재생하기 위한 긴급한 비상조치”라고 언급하고 있으며,<sup>21)</sup> 1966년의 4·19 기념사에서 “3·1의 독립운동, 4·19의 자유, 민권운동, 그리고 5·16의 민족중흥을 위한 혁명이 결코 분리된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뿌리를 한데 뭉치고 있는 이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일련의 몸부림이며, 이 겨레의 이상과 이념의 표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sup>22)</sup>

제2차 교과서의 ‘혁명’의 서사는 이처럼 박정희를 위시한 군부 정권의 역사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구성되었다. “혁명을 영도해 나갈 근대적 지

19) 이와 관련해서는 김태웅(2015)를 참조할 것.

20) 박정희(1962), 『우리민족의 나갈 길』, 동아출판사, p. 115.

21) 『동아일보』 1962년 4월 19일, 「오늘 4·19 두들」.

22)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3집 4월편, 동아출판사, 「1966년 4월 19일」.

도층이 형성되지 못”했던 동학 혁명 운동에서,<sup>23)</sup> “불의와 독재에 대하여 맨주먹으로 싸워 이긴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중 혁명”이지만 “민주적 안정 세력이 자리잡지 못한” 결과를 낸 4·19 의거,<sup>24)</sup> 그리고 이 “4·19 의거의 계승이었으며 발전”인<sup>25)</sup> 5·16 혁명으로 진전되는 서사는 그렇게 교과서 서술을 통해 완성·보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학 - 4·19 - 5·16의 혁명의 서사구조는 제3차 교과서에서 바로 취소되었다. 제3차 교과서는 유신 헌법 제정 이후 출간된 교과서로, 4·19에 대한 서술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더 이상 4·19를 혁명 운동으로 지칭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정도전 등 조선왕조의 창건세력을 혁명파라고 칭하는 한편, 5·16과 관련하여 ‘혁명’이 서술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제3차 교과서에 등장한 ‘혁명’과 그 내용

지칭대상	쪽	내용
신진사대부	115	즉, 고려 왕조의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온건파와 왕조 자체를 바꾸려는 적극적인 혁명파가 서로 대립되었다.
신진사대부	115	그러나, 정도전, 남은 등과 같은 혁명파는 신홍 무장 세력과 농민 군사들을 끌어들이어 역성 혁명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신진사대부	116	혁명파는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여, 밖으로 명과의 관계를 호전시키고, 안으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신진사대부	116	이에, 정몽주, 이색을 비롯한 온건파 사대부들은 군주의 힘을 빌어서 혁명파를 제거하려 하였으나, 군사력을 가지지 못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신진사대부	132	조선 왕조의 개창을 둘러싸고 성리학에 보다 충실하려는 일부 사대부들은 왕조 교체가 의리, 도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역성 혁명에 참가하기를 거부하고 향촌에 내려가 교육과 향촌 건설에 주력하였다.

23) 문교부(1968), (제2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p. 145.

24) 문교부(1968), pp. 191-192.

25) 문교부(1968), p. 192.

지칭대상	쪽	내용
동학	218	이런 측면에서, 동학은 운수가 끝난 조선 왕조를 부정하는 혁명 사상을 내포하였고, 보국 안민을 내세워 서양과 일본의 침투를 배척하였다.
동학	223	2. 동학 농민 혁명 운동은 어떠한 의의를 지녔는가?
산업혁명	225	세도 정치로 인하여 조선 왕조의 정치가 문란하고 민중이 절망 속에 빠져 있던 19세기 전반기에, 서양 여러 나라들은 산업혁명을 거쳐서 근대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하였다.
동학	236	고부 민란에서 발전한 동학 농민 혁명 운동은 우리 나라 역사상 최대의 농민 혁명의 추진이었고, 농민 전쟁의 성격을 띠었다.
동학	237	그들은 제폭 구민과 보국 안민의 기치를 들었을 뿐 아니라, 척왜 양이를 주장하고, 드디어 혁명적인 저항의 불을 지르기에 이르렀다.
동학	238	그런 중에도 동학 농민군의 항일 구국 투쟁은 삼남 일대에서 경기, 황해, 강원, 평안도에까지 번져 가 끈질긴 항쟁을 벌였으나, 마침내는 모두 진압되어 동학 농민 혁명은 실패로 돌아갔다.
동학	238	동학 농민군의 혁명은 이와 같이 실패하였으나, 그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동학	240	그러나,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 개항 이후 동학 농민 혁명 운동에 이르는 동안에 이룩하려던 개화 운동의 연장으로서, 흥범 14조는 이와 같은 개혁 정치의 요강이며,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띤 것이라 할 수 있다.
동학	259-260	한편, 외래 종교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싹튼 동학도 동학 혁명 운동 때 큰 탄압을 받았으나, 손병희 등의 노력에 의하여 재건되어 농민 사이에 교세를 확장해 갔다.
러시아혁명	279	마침 러시아의 공산 혁명이 성공되어 레닌은 약소 민족의 독립 운동에 대한 원조를 선전하였다.
5·16	288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우리 민족은 대한 민국 정부의 수립, 6·25 사변, 4월 의거, 민주당 정권 성립, 5월 혁명, 제3공화국의 탄생, 10월 유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주적인 현대 문화를 확립하고자 수많은 고난을 극복해야만 했다.
5·16	295	그러나, 온 국민은 이를 잘 극복하고 4월 의거와 5월 혁명을 거쳐서 제3공화국을 성립시켰다.
5·16	295	제3공화국은 혁명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여 반공 체제를 굳히는 한편, 고도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적 자립의 터전을 구축하였다.

지칭대상	쪽	내용
새마을운동	295	또한, 농촌의 근대화와 국민의 정신 혁명을 이룩하는 새마을운동과, 남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정치 체제를 조성하는 10월 유신을 단행하여 민족 중흥의 새 전기를 마련하였다.
5·16	295	2. 5월 혁명의 성격은 어떠한가?
5·16	297-298	이리하여, 군부의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혁명군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국민을 부정 부패와 불안에서 해방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1961년 5월 16일, 혁명을 감행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5·16	298	혁명군은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국민에게 6개조의 혁명 공약을 발표하여 그 이념과 당면 과제를 제시하였다.
5·16	298	그리고, 자립 경제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등 혁명 공약을 착실히 실천에 옮겨 갔다.
5·16	298	군사 혁명의 이념과 혁명 정부의, 의욕적인 정치는 제3공화국으로 계승되었다.
5·16	298	1963년에 들어서면서, 혁명 공약에 의해 정치 활동이 허용되고,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며, 그 해 11월에 총선거가 실시되어 혁명군을 주도하던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5·16	298	5월 혁명 이후 정부 주도하에 3차에 걸쳐 이루어진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공은, 북한을 월등히 능가하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중흥의 새 계기를 마련하였다.
새마을운동	299	국민 교육 현장은 국민 정신의 지표를 정립하여 민족의 자주 의식을 높이려 한 것이고, 새마을 운동은 농촌에서 근면, 자조, 협동의 국민 의식 혁명을 이룩하려 한 것이다.

제3차 교과서에서 4·19는 ‘혁명’이라는 정의에서 탈락한 것을 넘어, 서술 자체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제2차 교과서에서 4·19의 전개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고 그 의의를 약 2쪽에 걸쳐 적극적으로 규정하였던 것에 비하여,<sup>26)</sup> 제3차 교과서에서는 “그러나, 독재와 부정 선거에 분노

26) 제2차 교과서에서는 ‘5. 혁명과 발전’이라는 절 아래에 ‘4·19 의거’와 ‘4·19 후의 혼란’이라는 항을 두어 190쪽 후반부터 192쪽 초반에 걸쳐 3·15 부정선거, 대구

한 학생들이 4월 의거를 일으키고 국민들이 이에 호응하여, 자유당 정권은 무너지고 이승만 정권은 물러났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되었으며,<sup>27)</sup> 그 의의 또한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조선 왕조의 개창 세력을 ‘혁명파’로 새롭게 규정하였다. 제2차 교과서에는 이들과 관련한 특별한 서술이나 범주화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제3차 교과서에서 새롭게 혁명파라는 용어로 정의되었다. 역성혁명에 대한 평가도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제2차 교과서에서는 “조선 왕조의 개창은 … 사회구조의 본질적인 변혁은 없었다”라고 하였던 것이, 제3차 교과서에서는 “왕조 교체는 국리를 증진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이루고, 고려 왕조와는 성격이 다른 새 사회의 건설을 보게 되었다”는 서술로 변화하였다.<sup>28)</sup>

이러한 서술의 변화는 연구의 진전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다.<sup>29)</sup> 그러나 ‘혁명파’라는 용어의 선정은 일정 부분 정권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1977년 발간된 문교부·국사편찬위원회 편찬의 『한국사』에서도 혁명파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온건론자와 급진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sup>30)</sup> 특히 이 책에서는 “개혁파 관리들이 田制改革을 비롯한 일련의 개혁을 추진시키고 조선왕조를 건국한 것은 …… 사회개혁 내지 사회혁명적인 성격을 찾아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

와 마산에서의 학생 시위,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 등의 전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4월 의거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도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문교부(1968), pp. 191-192.

- 27) 국사편찬위원회, 1중도서연구개발위원회 편(1979), (제3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p. 296.
- 28) 국사편찬위원회, 1중도서연구개발위원회 편(1979), p. 113.
- 29) 당시 정도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조선 왕조의 개창 성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우근(1973), 『(한국문화연구총서 15) 鄭度傳 思想의 研究』, 서울: 韓國文化研究所 등이 있다.
- 30) 대한민국문교부·국사편찬위원회 편(1977), 『한국사 9: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탐구당, p. 25.



있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관찰이다”라고 하면서도, “물론 麗末의 개혁과 新王朝의 개창이 피지배계급인 농민세력이 주체가 되어 지배계급을 넘어뜨리고 새로운 農民政權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사회혁명이 아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라고 단정하고 있다.<sup>31)</sup> 이것이 제3차 교과서를 편찬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간된 서적임을 감안하면, 필자의 차이를 염두에 두더라도, 같은 시기 편찬된 제2차 교과서에서 ‘혁명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권의 의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신진사대부 ‘혁명파’의 등장과 쌍을 이루는 것은 5·16의 ‘혁명군’이다. 제2차 교과서에서는 단지 5·16 혁명의 청년 장교로 지칭되었던 것이, 제3차 교과서에서는 5·16 ‘혁명군’으로 표현되었다. 이미 1961년 5·16 당시부터 신문 등에서는 ‘혁명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제2차 교과서에는 그러한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 혁명’의 서사를 구성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서사에 군인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치 않았고, 따라서 혁명군은 ‘청년 장교’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제3차 교과서에서는 4·19가 혁명에서 탈락되고 직접적인 의미 부여를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혁명군’이 서술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교과서 집필진의 의도 여하를 막론하고, ‘신진사대부 혁명파’와 ‘5·16 혁명’의 서사는 매우 유사해졌다. 신진사대부 혁명파가 신흥 무장 세력과 농민들을 끌어들이어 새 사회를 건설하였다는 조선 왕조 창건의 서사는,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일어난 혁명군이 농민의 지지 속에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 국민 의식 혁명을 이룩한다는 서사와 꼭 닮아 있다.

이런 경향은 교육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학 - 4·19 - 5·16의 민주 혁명 서사를 가지고 있던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사 교과의 지도 목표 네 가지 중 가장 먼저 든 것이 ‘민주 국가 발전’이었다.<sup>32)</sup> 그리고 교과서의

31) 대한민국문교부·국사편찬위원회 편(1977), p. 30.

32) 제2차 교육과정의 지도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지도목표 (1) 국사의 전 발전 과정

장절 구성에서도 “8장. 민주 대한의 발달”을 서술하고, “우리의 사명”에서는 민주 국가의 건설을 주창하는 방식을 통해 ‘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신진사대부 - 동학 - 5·16의 혁명 서사로 바뀐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서술이 모두 삭제되었다. 그 대신 “국사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민족사관을 확립시키고 민족적 자부심을 키워서, 민족 중흥에 이바지하게 한다”는 것이 국사교육의 최우선 목표가 되었다.<sup>33)</sup> 이에 따라 장절구성에서도 ‘민주 대한의 발달’은 삭제되고, ‘현대사회’ 절에서 (1)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2) 민족문화의 새 과제,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로써 제3차 교과서의 혁명 서사는 신진사대부 혁명파 - 동학 - 5·16

을 통하여 발달된 우리 민족의 미점과 우수성을 찾아 민족애를 철저히 하는 한편 민족적 과업의 달성을 위하여 올바른 반성을 가지게 하며, 그를 시정하고 민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2) 국가 발전에 있어서의 각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활을 종합적으로 이해시킴으로써 각 시대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를 고찰시키는 한편, 경제 부흥과 사회 개선에 노력하며 문화 유산을 존중하는 태도와 새 문화의 창조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3) 우리 민족이 각 시대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세계사와의 연관에 유의하여 국사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이해시킨다. (4) 우리 나라의 세계적 지위를 올바로 이해시킴으로써 반공 사상을 강화하여 세계 평화 건설에 이바지하게 한다.” 문교부령 제121호(1963. 2. 15.), 「고등학교 교육과정」, V. 국사(문교부(1986),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1946~1981) 사회과·국사과』, p. 332).

- 33) 제3차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목표 가. 국사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민족사관을 확립시키고 민족적 자부심을 키워서, 민족 중흥에 이바지하게 한다. 나. 각 시대의 특성을 그 시대의 규범 체제와 문화 현상을 통하여 종합적, 발전적으로 파악시킴으로써, 현재를 바로 알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기른다. 다. 국사의 특수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을 인식시켜서, 민족사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하고,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라. 전통 문화를 역사 의식을 가지고 인식하게 하여서, 외래 문화를 수용하는 바른 자세와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마. 전통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파악하게 하여서, 투철한 역사 의식을 가지고 당면한 국가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키운다.” 문교부령 제350호(1974. 12. 31.), 「고등학교 교육과정」, VII. 국사(문교부(1986),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1946~1981) 사회과·국사과』, p. 357).

의 서사로 형성되었다. 여전히 5·16을 4·19의 연장으로 파악하는 시각도 일부 남아 있기는 했지만,<sup>34)</sup> 이는 4·19에 대한 의의 부여를 삭제한 상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결과 제3차 교과서의 혁명 서사는 민주 대한의 서사로 규정되었던 제2차 교과서의 동학 - 4·19 - 5·16의 서사와는 또 다른 형태로 구성되었다. 신진사대부 혁명과 - 동학 - 5·16으로 이어지는 혁명의 서사는, 농민을 지지층으로 삼은 군인 세력이 영도하는 혁명의 길에 오히려 더 가까웠다. 그 결과 제3차 교과서의 “오늘날의 역사적 사명”에는 제2차 교과서에서 언급되었던 민주 대한의 건설은 언급되지 않은 채, “과거 문화에 대한 비판을 철저히 하여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방향을 확고히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sup>35)</sup> 이는 10월 유신을 통하여 민주주의 서사를 전면에 내 걸 수 없게 된 박정희 정권의 새로운 교육 방침에 다름 아니었다.

#### 4. ‘혁명’ 서사의 축소와 과도기적 전환:

##### 제4차~제5차 교과서 시기

제2차, 제3차 교과서에서 적극적으로 규정되었던 ‘혁명’은 전두환 정부 때 출간된 제4차 교과서 시기에 오면서 점차 축소되기 시작한다. [표 1]과 [표 2]에 따르면 제3차 교과서에서 34회 등장하였던 ‘혁명’은, 제4차 교과서에서는 24회로, 제5차에서는 20회로 점차 감소하였다. 같은 시기 교과서 전체의 분량은 거의 1.5배에 가깝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혁명이 등장하는

34) 5장 2절 민족 중흥의 새 전기의 개요에서 “그러나, 온 국민은 이를 잘 극복하고 4월 의거와 5월 혁명을 거쳐서 제3공화국을 성립시켰다”와 같은 서술을 예로 들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편(1979), (제3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p. 295.

35)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편(1979), p. 301.

상대량은 제3차 때 3.17에서 제5차 때는 1.35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제4차에서 개항기의 ‘혁명’ 등장이 감소한 것은 동학이 ‘혁명’에서 탈락한 것에서 기인한다. 동학은 제3차 교과서에서 ‘동학 농민 혁명 운동’으로 지칭되었으나, 제4차 교과서에는 ‘동학 운동’으로 변경되었다. 동학의 ‘혁명성’ 유무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지만, 1979년 출간된 제3차 교과서에서도 ‘동학 혁명’으로 칭해지던 동학은, 한 순간에 ‘동학 운동’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편수관 개인의 성향 때문인 것으로 이야기되기도 하지만,<sup>36)</sup> 1970년대 농민운동과 민주화 운동이 성장하면서 새로 집권한 신군부 정권이 ‘농민’과 ‘혁명’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부담스러워 했던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 파악하기도 한다.<sup>37)</sup>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동학은 제2차~제3차 교과서에서 ‘혁명’ 서사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군사정권이 농민층을 포섭하여 그 기반을 단단하게 하려는 계획의 산물이었다.<sup>38)</sup>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며, 학생운동에서 동학 - 3·1 - 4·19의 계보인식이 자리잡았다.<sup>39)</sup> 이를 통해 동학은 근대화의 여명기에 민족혼을 불러 일으켜 반식민의 효시를 이룬 행위로 위치 지워졌다.<sup>40)</sup> 이에 따라 만들어진 동

36) 당시 편수 업무를 담당했던 윤종영은 개인적으로 동학 사상 자체를 혁명의 원리를 보기 어렵고, 농민의 계급적 이익이 바탕이 되지 않고 민족적 문제를 표방하였으며, 근왕적 성격을 보였기 때문에 ‘농민전쟁’이나 ‘혁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경하였다고 회고한 바 있다. 이러한 회고와 관련해서는 윤종영(1999), 『국사 교과서 파동』, 서울: 해안, pp. 325-342를 참조할 것.

37)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김태웅(2015), pp. 237-238을 참고할 것.

38) 군사정권은 동학의 성격을 (1) 민중혁명과 민족혁명으로 규정하고, (2) 한국 민주혁명과 근대화의 기점으로 규정하였으며, (3) 서구 사상의 직수입이 아닌 주체성을 가진 동학에서 혁명사상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한국화’를 위한 정신적 원천을 찾았고, (4) 동학을 3·1과 4·19, 5·16로 이어지는 ‘한국민주혁명’이라는 관점에서 5·16과 계보학적으로 연결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쿠데타를 합리화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오제연(2015),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과 대학생의 ‘동학농민전쟁’ 인식」, 『역사문제연구』 33, 역사문제연구소, pp. 185-186.

39) 오제연(2015), p. 203.

학 - 3·1 - 4·19의 계보는 아래로부터 시도된 “민권의 혁명”<sup>41)</sup>이자, “반봉건, 반제, 반독재 투쟁의 역사”로 인식되었다.<sup>42)</sup> 이러한 학생운동의 혁명의 계보는 사실상 제2차 교과서의 혁명의 계보에서 5·16만 탈각되었을 뿐인 것으로, 정권의 정통성이 부족한 전두환 정권에서는 이러한 민주 혁명 계보의 흔적을 교과서에 남겨 두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아울러 전두환 정권에서는 ‘혁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16년의 재임기간 동안 1,270번에 이르는 연설 중 159번(12.5%)의 연설에서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때 혁명은 공산주의 혁명이나 산업혁명을 지칭하기도 했지만, 상당수는 5·16을, 때로는 4·19를 지칭하기도 했다.<sup>43)</sup> 그러나 전두환은 7년간 602번에 이르는 연설에서 혁명을 사용한 것은 23회(3.8%)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공산주의 혁명이나 외국의 혁명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sup>44)</sup> 혁명을 스스로에게 적극적으로 전유하였던 박정희 정권과는 다르게, 전두환 정권은 ‘혁명’

40) 오제연(2015), p. 197.

41)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187인의 고귀한 죽음으로 내세운 민주 혁명의 피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하여 온 우리는, 민족사를 평가로 짓는 70년대의 절박한 상황에서 더욱 공고하게 성장할 것이며 동학 혁명과 3·1운동을 거쳐 4·19로 면면히 이어져 온 민권의 혁명을 완수하고자 말 것이다. 4월 혁명 만세!” 전국대학생연맹, 『백서』(1970. 4. 19.), 오제연(2015), p. 204에서 재인용.

42) 서울대 문리과대학 학생총회, 『구국투쟁선언문』(1971. 5. 6.), 오제연(2015), p. 205에서 재인용.

43) 이러한 수치는 대통령기록연구소(<http://pa.go.kr>)에 탑재되어 있는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44) 총 23회의 ‘혁명’이 등장한 연설 중, 전체 혁명의 등장 횟수는 29회이다. 이 중 외국 대통령 방한 당시 해당국의 사건이나 당을 지칭한 것이 11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북한의 폭력 혁명을 지칭한 것이 7회이다. 1986년에는 민주화운동을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혁명’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그 밖에 의식혁명 2회를 비롯하여, 산업혁명, (새마을운동 관련) 산업혁명, 교육혁명, 사회주의혁명, 프랑스혁명, 소련혁명 등이 각 1회씩 사용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대통령기록연구소(<http://pa.go.kr>)의 대통령 연설 기록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혁명이 사실상 학생운동 혹은 공산주의 진영의 용어로 사용되고, 이를 스스로가 전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었던 동학을 ‘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 결과 제4차 교과서에서 동학을 매개로 한 ‘혁명’ 서사의 연결은 해체되고, 신진사대부 혁명과 - 5·16 혁명의 두 축만이 남게 되었다.

[표 5] 제4차 교과서에 등장한 ‘혁명’과 주요 내용

지칭 대상	쪽	등장 횟수	주요 내용
신진사대부	국사(상) 115-116, 133	9	즉, 고려 왕조의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온건파와 왕조 자체를 바꾸려는 적극적인 혁명파가 서로 대립하였다. (p. 115)
동학	국사(하) 58	1	이런 측면에서, 동학은 운수가 끝난 조선 왕조를 부정하는 혁명 사상을 내포하였고, 보국 안민을 내세워 서양과 일본의 침투를 배척하였다.
산업혁명	(하) 64	1	60여 년 간에 걸친 세도 정치로 말미암아 조선 왕조의 유교 정치 질서가 문란해져 백성들이 고통을 겪던 19세기 전반기에, 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산업 혁명을 거쳐서 근대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하였고,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지를 구하기 위해 아시아에 눈을 돌리고 있었다.
당이름	(하) 148	1	이보다 앞서 김원봉의 조선 혁명당 쪽에서 조선 의용대를 결성하여(1938) 중국 각지에서 항일 전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5·16	(하) 156, 168, 170-171, 173	10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우리 민족은 대한 민국 정부의 수립, 6·25 남침, 4월 의거, 제2공화국 성립, 5월 혁명, 제3, 4공화국 성립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족 국가와 민주 사회로의 발전을 꾀하여 왔다. (p. 156) 이에 박정희 등 군인들이,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고 국민을 부정 부패와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민주 국가를 건설하자는 기치 아래 5월 혁명을 일으켰다(1961). (p. 170) 제3공화국은 군사 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공약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였다. (p. 171)

지칭 대상	쪽	등장 횟수	주요 내용
새마을 운동	(하) 168, 173-174	4	국민 교육 현장은 국민 정신의 지표를 확립하여 민족의 역사 의식을 높이려 한 것이고, 새마을 운동은 농어촌에 근면, 자조, 협동의 국민 의식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범국민 자각 운동이었다. (p. 174)

이러한 신진사대부 혁명파 - 5·16 혁명의 구조는 제5차 교과서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형식적 민주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군부 정권의 유산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5·16을 혁명으로 보는 시각이 잔존하였던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그 서술 분량은 점차 축소되었다. 5·16을 혁명으로 지칭하는 사례는 제3차 교과서에서는 모두 16회 등장하였으나, 제4차 교과서에서는 10회, 제5차 교과서에서는 6회로 줄어들었다.

[표 6] 제5차 교과서에 등장한 ‘혁명’과 주요 내용

지칭 대상	쪽	등장 횟수	주요 내용
신진 사대부	(상) 136-137, 181	6	즉, 고려 왕조의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온건파와 왕조 자체를 바꾸려는 적극적인 혁명파가 서로 대립하였다. (pp. 136-137) 그러나 정도전, 남은 등과 같은 혁명파는 신흥 무인 세력과 농민 군사들을 끌어들이어 새 왕조 개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p. 137) 그리하여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혁명파는 권문 세족과 온건파 사대부들을 힘으로 누르고, 전체 개혁을 단행하여 민심을 수습한 후, 마침내 새 왕조를 개창하였다 (1392). (p. 137)
농민	(하) 46	1	예언 사상의 현실 부정적 성격은 당시 농민의 항거 운동에 혁명적 기운을 불어넣기도 하였다.
동학	(하) 48	1	이러한 측면에서, 동학은 운수가 끝난 조선 왕조를 부정하는 혁명 사상을 내포하였고, 보국안민을 내세워 서양과 일본의 침투를 배척하였다.

지칭 대상	쪽	등장 횟수	주요 내용
외국 혁명	(하) 123	1	또, 외국의 건국 영웅이나 독립 운동, 혁명 운동의 역사를 번역, 소개하여, 국민들의 독립 의지와 역사 의식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당 이름	(하) 148-149, 172	4	양세봉이 지휘하는 조선 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흥경성, 영릉가 등지의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p. 148)
5·16	(하) 170-171, 182, 191, 196	6	그 후, 우리 나라는 6·25 전쟁, 4·19 의거, 5·16 군사 혁명, 10·26 사태, 6·29 선언 등을 거치면서 민주 사회로의 발전을 지속하였다. (p. 170) 이에, 4·19 의거가 일어났으며, 이어서 일어난 5·16 군사 혁명 이후 경제적 성장은 이룩되었으나, 정치면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둘러싸고 오랜 진통이 계속되었다. (p. 171)
새마을 운동	192	1	경제적 성장을 이루면서 정신 혁명과 국민 의식이 고취되고, 농어촌 근대화를 이룩하려는 움직임이 태동하게 되었다.

한편 제5차 교과서에서는 5·16에 대한 서술이 축소되는 동시에 다시금 ‘민주’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2차 교과서에서 강조되었던 민주 혁명의 서사는, 유신체제 성립 이후 발행된 제3차 교과서에서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어진 전두환 정권에서 발행된 제4차 교과서와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졌다. 제4차 교육과정의 교과 목표에는 민주와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sup>45)</sup> 장절 구성에서는 ‘6) 현대사회의 발전’ 아래에 ‘(가) 민주국가의 수립’을 넣었으나, 여전히 장절 목표는 “광복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민족사의 흐름을 살핌으로써

45) 제4차 교육과정의 교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교과목표. 한국사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통하여 올바른 민족 사관을 확립시키고, 우리 역사에 대한 긍지를 배양하며, 자주적인 태도로 민족 중흥에 이바지하게 한다. ……” 문교부 고시 제442호 (1981. 12. 31. 개정 고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사과, (문교부(1986),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1946~1981) 사회과·국사과』, p. 360).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의의를 이해하고, 새 역사 창조의 자세를 확립하게 한다”고 규정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sup>46)</sup>

그러나 제5차 교육과정에 이르면 “올바른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새 문화 창조와 민주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라고 하여, 다시금 ‘민주’가 교과 목표에 포함되었다.<sup>47)</sup> 나아가 장절 목표에서도 ‘8) 현대 사회의 전개’의 목표를 “광복 이후의 현대사를 민주 정치의 발전, 경제적 근대화의 달성, 민족 문화의 창달, 국제 사회로의 진출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족 통일의 과제를 인식하게 한다”라고 서술하여서 민주 정치의 발전을 한 축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sup>48)</sup> 해당 절의 학습 요소에서도 “이 주제에서는 광복과 국토의 분단,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6·25, 4·19와 제2, 3, 4 공화국, 그리고 10·26과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적 변천 과정을 다룬다”고 하여 4·19가 보다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기에 이르렀다.<sup>49)</sup> 이는 6월 항쟁 이후 변화된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창출해 낸 노태우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처럼 1987년 6월 항쟁으로 제6공화국이 성립하면서, 교과서에는 다시금 민주 혁명의 서사가 복원될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용어의 수정은 없었지만, 5·16 혁명의 등장 빈도가 축소되었으며, 교육과정에서 4·19가 중요한 축으로 다시금 등장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46) 문교부(1986),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1946~1981) 사회과·국사과』, p. 362.

47) 제5차 교육과정의 교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교과목표. 한국의 역사를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그 발전의 특성을 이해하고, 역사 학습 과정을 통해 탐구 기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며, 올바른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새 문화 창조와 민주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 문교부 고시 제88-7호(1988. 3. 31), 「고등학교 교육과정」, 3.국사과.

48) 문교부 고시 제88-7호 (1988. 3. 31), 「고등학교 교육과정」, 3.국사과.

49) 문교부(1989),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해설(문교부 고시 제88-7호(1988. 3. 31.))』, pp. 162-163.

러한 과도기적 변화는 이후 ‘혁명’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음을 예보하는 것이었다.

## 5. 유일한 ‘혁명’으로의 4·19와 혁명 서사의 약화:

### 제6차~2011 개정 교과서 시기

제6차 교육과정은 문민정부 수립 이후인 1993년부터 개발 준비에 들어갔다. 이때 교과서 개정을 위한 준비단계로 ‘국사교과서 개정 준거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연구 개발에 돌입하였다. 1993년 9월에는 교육부의 위촉으로 ‘국사교육 내용전개 준거안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9명의 교수로 구성된 연구위원회가 우선 시안을 작성하고, 교수 및 교사로 구성된 31명의 심의위원회가 두 차례 심의·확정하여, 1994년 5월에 국사 편찬위원회에 제출하여 다시금 보완·심의한 후 1994년 6월에 교육부 최종안을 확정하는 일정이었다.<sup>50)</sup> 그러나 1994년 3월 18일 개최된 ‘국사교육 내용전개 준거안 연구위’ 세미나에서의 발표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소위 ‘준거안 파동’으로 이어진다.

준거안 시안에서 주로 문제가 된 부분은 현대사 부분의 서술이었다. 시안에서는 국사 교과서에서 사용할 용어의 변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는 5·16을 기존의 혁명에서 쿠데타로, 4·19를 의거에서 혁명으로 변경하는 것을 비롯하여, 4·3을 항쟁으로, 대구폭동을 대구항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었다.<sup>51)</sup> 그러나 정식 시안을 마련하기 전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시안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는 국사 교과서 서술을 사상·이념 논쟁으로 비화시켰다.<sup>52)</sup>

50) 최경욱(2004), 「역사교육문제에 관한 신문보도의 양상과 여파 : 1994년 ‘국사 준거안 파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0-11.

51) 『조선일보』 1994년 3월 19일, 「대구 ‘폭동’을 ‘항쟁’ 개칭, 큰 논란 예상」.

6월에 발표된 준거안 시안에서는 동학을 ‘동학농민혁명운동’으로, 4·19를 ‘4월 혁명’으로, 5·16을 ‘5·16군부쿠데타’로 정리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는 1970년대 이후 학생운동의 동학 - 3·1 - 4·19의 민주 혁명 서사가 교과서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했다.<sup>53)</sup> 그러나 일련의 준거안 파동 과정 속에서 발생한 여론의 우려와 논란으로 인하여 교육부 시안에서는 기존 안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그 결과 같은 해 8월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준거안 최종 확정안에서 이들 명칭은 ‘동학농민운동’, ‘4월혁명’, ‘5·16군사정변’으로 최종 확정되었다.<sup>54)</sup>

비록 최초의 준거안 시안과는 많이 다른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발간된 제6차 교과서에서 ‘혁명’의 서사는 직전의 제5차 교과서와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제6차 교과서에서는 준거안 확정안에 따라 5·16이나 새마을운동을 혁명으로 칭하는 사례가 전부 사라지고, 4·19가 다시금 혁명으로 위치 지워졌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세계사 속의 여러 ‘혁명’들이 국사 교과서에 등장하였다. 이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세계사와의 연계성이 강조되면서 각 장의 초반에 해당 시기 세계사의 전개 과정이 개괄적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국사 교과서에 시민혁명, 산업혁명과 같은 세계사의 사건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sup>55)</sup>

52) 최경옥(2004), pp. 19-23.

53) 1994년 4월 19일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4·19세대들의 평가와 과제’라는 제하(題下)의 회담에서 민주당 이기택 대표는 다음과 같은 말로 4·19의 계보를 정리하고 있다. “저는 면면히 흐르는 민족정기에서 4·19정신을 찾고 싶습니다. 근대사에서 3대 혁명적 민족정기는 동학혁명, 3·1운동 그리고 4·19입니다. 그런데 반혁명인 5·16쿠데타가 30년 군사독재체제를 가능하게 했고…….” 이 발언은 1970년대 이래 학생운동의 민주 혁명의 계보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아일보』 1994년 4월 19일 「4·19는 끝나지 않은 국민혁명, 34돌鼎談, 4·19세대들의 평가와 과제」.

54) 『동아일보』 1994년 9월 1일, 「급진사관 배격, ‘기준틀’ 유지」.

55) 제4차와 제5차 교과서에서는 외국의 ‘혁명’들이 각각 1회씩 밖에 등장하지 않았다. 반면 제6차 교과서에서는 10회로 증가하였다.

[표 7] 제6차 교과서에 등장한 ‘혁명’과 주요 내용

지칭 대상	쪽	등장 횟수	주요 내용
세계사 사건	(상) 15, 166 (하) 3, 4, 128, 162	10	서양의 근대 사회는 르네상스에서 싹이 돋아나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에 의해 성숙되었다. ((하) p. 3) 한편, 1917년의 11월 혁명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확립한 소련은 코민테른을 결성하여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 및 약소 민족의 독립 운동과 연계를 꾀하면서 공산주의 세력을 침투시키려고 하였다. ((하) p. 128)
신진 사대부	(상) 136, 169, 213	5	이러한 상황에서, 사대부층은 점차 고려 왕조 테두리 안에서의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려는 온건파와 왕조 자체를 바꾸려는 적극적인 혁명파로 갈렸다. (p. 169)
농민	(하) 42	1	예언 사상의 현실 부정적인 성격은 당시 농민들에게 혁명적 기운을 불어넣기도 하였다.
당 이름	(하) 158-159, 190	4	한편, 양세봉이 지휘하는 조선 혁명군도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흥경성 전투,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여 대승을 거두었다. (p. 158)
4·19	(하) 186, 202-205, 222	10	그 후 우리 나라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독재에 대하여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4·19 혁명이 일어났다. (p. 186)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 혁명으로서 우리 민족의 민주 역량을 전세계에 보여 주었다. (p. 204) 4·19 혁명 이후 출범하였던 장면 내각은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9개월의 단명으로 끝나게 되었다. (p. 205)
5·16	205	1	군사 정부는 혁명 공약에서 반공을 국시로 천명하고 경제 재건과 사회 안정을 내걸었으며, 정치 활동 정화법을 제정하여 구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준거안 시안에서 ‘동학농민혁명운동’으로 제안하였던 ‘동학’에 대한 명칭이, ‘동학운동’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제6차 교과서에서 ‘혁명’은 신진사대부 혁명파 - 4·19의 두 축으로만 구성되었다. 기실 신진사대부 혁명

과와 4·19는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것이었다. 1970년대 이래 학생운동 계열이 추진하였던 동학 - 3·1운동 - 4·19의 민주 혁명 서사의 부활의 시도가 실패하면서, 제6차 교과서는 세계사의 사건과 신진사대부, 4·19가 ‘혁명’으로써 명확한 성격 규정 없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어진 제7차 교과서는 국정 ‘국사’와 검정 ‘근현대사’의 두 과목으로 분리되면서, 근현대사의 서술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표 1]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혁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절대 횟수와 상대 빈도도 2배가량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제7차 교과서에서 ‘혁명’은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을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혁명’이 사용되는 빈도가 증가한 것과 더불어 ‘혁명’이 지칭하는 대상 또한 다양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제7차 교과서에 등장한 ‘혁명’과 주요 내용

지칭 대상	쪽	등장 횟수	주요 내용
세계사 사건	(국) 18, 80, 95	13	즉, 절대 왕정, 시민 혁명,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근대 유럽 세계가 확립되었다. (p. 95)
세계사 사건	(검) 40, 104, 144-145, 170, 221, 250	9	한편, 1917년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은 세계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p. 144) 그 결과 계급 투쟁을 강조하는 대중 운동에 의해 공업과 전문가를 중시하던 실용주의자들이 몰려난 문화대혁명이 일어나 1970년대 전반까지 계속되었다. (p. 250)
신진 사대부	(국) 81	2	반면, 정도전 등 급진 개혁파는 고려 왕조를 부정하는 역성혁명을 주장하였다. (p. 81)
고유 명사	(국) 121	1	1930년대 만주에서 활동하던 다수의 독립군은 한국 독립군과 조선 혁명군으로 재편되었다.
고유 명사	(검) 186, 194-198	20	양세봉의 조선 혁명군도 중국 의용군과 힘을 합해 1932년 3월부터 4개월 동안 영릉가에서 치열한 전투 끝에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p. 195) 이로써 중국 관내의 항일 단체는 민족 혁명당이 중심인 조선 민족 전선 연맹과 한국국민당이 중심인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로 양분되었다. (p. 198)

지칭 대상	쪽	등장 횟수	주요 내용
농민 운동	(국) 240	1	사회주의자들은 기존의 합법적 농민 조합 대신 비합법적, 혁명적 농민 조합을 조직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대부분 좌절되었다.
노동 운동	(검) 213-214	2	이후 노동 운동은 사회주의자들과 연결된 비합법 조직인 혁명적 노동조합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p. 213)
의열단	(검) 186	1	테러 활동만으로는 민족 해방을 쟁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열단은 계획적인 혁명 훈련과 간부 조직에 착수하였다.
4·19	(국) 106, 125-126, 129, 185	4	그러나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으로 민주주의가 점차 발전하였다. (p. 106)
4·19	(검) 276, 280, 308, 310, 325-326	8	결국 사회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은 꽃을 피우지 못하다가 5·16 군사 정변으로 꺾이고 말았으며, 4·19 혁명도 ‘미완의 혁명’으로 남게 되었다. (p. 280)
5·16	(국) 126	1	군부 세력은 비상 계엄하에서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반공 강화와 민생 안정 등을 표방한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북한	(국) 334	3	북한의 문화와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목적보다는 대중에게 공산주의 혁명 정신을 가르치는 당의 무기로서 발전하였다. (p. 334)
북한	(검) 302, 304	5	1967년에는 주체사상을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고, 혁명 전통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본격화하였다. (p. 302)
문화 혁명	(검) 301	1	제1차 7개년 계획은 공업의 양적·질적 개선과 함께, 전면적인 기술 개혁과 문화 혁명, 그리고 인민 생활의 급속한 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녹색 혁명	(국) 186	1	또, 녹색 혁명의 기치 아래 간척 사업과 작물의 품종 개량도 실시하여 식량 생산이 늘어났다.
녹색 혁명	(검) 335	1	그 결과 1976년 쌀을 소비량의 101%, 보리를 98% 생산하여 주곡 자급에 성공함으로써 녹색 혁명을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국)은 국정 『국사』를, (검)은 김정 『한국근현대사』(금성출판사)를 의미함.

우선 제3차 교과서부터 ‘혁명파’로 지칭되었던 정도전 등의 신진사대부들이 ‘급진 개혁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sup>56)</sup> 또한 시민혁명, 산업혁명, 러시아혁명, 신해혁명 등 세계사의 사건을 의미하는 용어들의 등장 빈도가 증가하였다. 세계사 용어의 등장은 제6차 교과서에서는 10회에 불과하였지만, 제7차 교과서에서는 22회로 증가하였다. 고유명사<sup>57)</sup>의 등장 빈도도 크게 증가하여서, ‘조선 혁명 선언’, ‘민족 혁명당’, ‘조선 혁명군’ 등 일제시기의 사회주의 혹은 무정부주의 단체 및 선언들의 명칭으로써 ‘혁명’이 21회 등장하고 있다. 특히 검정교과서로 출판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부분에서 북한 관련 서술이 증가하면서, 사실상 고유명사나 다름 없는 북한의 여러 ‘혁명 운동’과 관련한 등장이 7회 있었고, ‘혁명적 노동 조합’과 같이 당대에 사용되었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도 3회 등장하였다.

이처럼 제7차 교과서에서 ‘혁명’의 등장 빈도 증가는 ‘세계사의 사건’으로써의 혁명, 또는 ‘사회주의 단체의 고유명사’로써의 혁명이 대거 등장한 것과 더불어 이루어졌다. 사회주의 단체명으로 주로 등장하는 고유명사의 증가는 1980년대 후반 이래 증가한 사회주의 독립운동 연구의 진전과 시대 분위기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6차 교과서에서 ‘민주 혁명’으로써 의의를 부여했던 4·19의 등장 빈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4·19 ‘혁명’은 제6차 교과서에서는 10회 등장하였지만, 제7차 교과서에서는 11회 등장하였는데, 혁명의 등장 횟수가 31회에서 73회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에 비하면 그 증가폭이 적었다.<sup>58)</sup> 더 큰 변화는 4·19를 ‘미완의 혁명’으로 규정한 것

56) 신진사대부에 ‘혁명’을 붙이는 것은 ‘역성혁명’을 추진하였다고 사용하거나, 처음 급진개혁파를 설명할 때 “급진개혁파(혁명파)”라고 서술하여, 이전의 서술과 보조적으로 연결시키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

57) 여기서 말하는 고유명사란 주로 당대에 사용했던 ‘당명’과 같이 의의 부여에 따라 그 표현을 바꾸기 어려운 것들을 말한다.

58) 다만 이것을 제7차 교과서에서 4·19의 위상이 온전히 축소되었다고 보는 것은

이다. 이는 ‘혁명’의 정의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려는 시도가 반영된 것이었다.<sup>59)</sup> 제2차 교과서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혁명’의 서사가 정권의 정통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다면, 제7차 교과서에서 4·19를 ‘미완의 혁명’으로 정의한 것은, 혁명에 대한 보편적이고 학술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사』와 『한국근현대사』가 『한국사』로 통합되어 발행된 2011 개정 교과서는,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혁명’의 등장 횟수가 제6차 교과서와 비슷한 빈도로 감소하였다. 교과서 전체의 분량이 줄어들면서 [표 2]의 상대빈도는 제7차에서 약간 줄어드는 정도에 그친다. 전체적인 서술 양상은 신진사대부를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구분하여 혁명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7차의 서술을 계승하였고, 세계사의 ‘혁명’과 고유명사로서의 혁명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특히 ‘혁명적 노동운동’과 ‘혁명적 농민운동’의 등장 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표 9] 2011 개정 교과서에 등장한 ‘혁명’과 주요 내용

지칭 대상	쪽	등장 횟수	주요 내용
신진사대부	146	1	반면, 정도전, 조준 등 급진 개화파는 고려 왕조를 부정하는 역성혁명을 주장하였다.
의생활	168	1	조선은 일본에 무명, 인삼, 각종 서적 등을 보내주었는데, 이때 보내 준 면포는 일본인의 의생활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평가될 정도였다.

어렵다. 제7차 교과서(근현대사)에서는 pp. 277-283에 걸쳐 세 쪽의 본문과 네 쪽의 탐구활동을 통해 4·19의 의의와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59) 4·19가 혁명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는 부분한 편이다. 논자에 따라 4·19는 ‘민중혁명’으로 규정되거나, 제한적인 수식어를 붙여 ‘미완의 혁명’으로 표현하거나, 혁명과 관련이 없는 ‘정치적 봉기’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김영명(2017)을 참조할 수 있다.



지칭 대상	쪽	등장 횟수	주요 내용
세계사 사건	217, 291, 307	5	영국을 비롯한 서양 열강은 산업 혁명을 거쳐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p. 217) 중국에서 국·공 합작이 파기되자 코민테른은 1928년 제6차 대회에서 식민지 민족 운동에서 민족주의자들의 혁명성을 부정하는 ‘계급 대 계급’ 전술을 채택하였다. (p. 324)
농민·노동 운동	318-319, 324	10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30년대 초반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이 나타나게 되었다. (p. 318) 전국의 부, 군 가운데 3분의 1 이상의 지역에서 혁명적 농민 조합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특히 함경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p. 340)
고유 명사	331-333, 349	11	국민부는 조선 혁명당을 조직하고 그 산하에 무장 부대인 조선 혁명군을 결성하였다. (p. 331)
4·19	387, 394, 413	5	결국 장면 정부는 5·16 군사 정변으로 출범 9개월 만에 붕괴되었으며, 이로써 4·19 혁명도 ‘미완의 혁명’으로 남게 되었다. (p. 387) 4·19 혁명, 부·마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으로 이어진 민주화 운동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희생을 치렀지만,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원동력이 되었다. (p. 394)
5·16	387	1	이들은 정변 직후 발표한 이른바 ‘혁명 공약’에서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내 걸었으며, 경제 개발과 사회 안정을 정변의 명분으로 제시하였다.
북한	407-408, 413	3	북한은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전체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당면 과제로 내세웠다. (p. 408)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세계사 속에서의 혁명은 제6차에서는 10회 등장하여 전체 등장 횟수의 32.3%를 차지하였다. 제7차에서는 22회(전체 혁명 등장 횟수의 29.7%) 등장하여 정점을 찍었고, 2011 개정에서는 5회(13.5%)로 감소하였다. 사회주의자들의 단체명 혹은 운동 명칭으로 ‘혁명’이 등장한 경우는 제6차에는 4회(12.9%)에 불과했고, 그 용례도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과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두 개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25회(33.8%)로 6배 증가하였으며, 그 용례도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을 비롯하여, 동북인민혁명군, 화북조선 청년혁명학교, 혁명적 노동·농민조합 등 다양한 사례로 확장되었다. 이어진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의 단체/운동명으로 등장한 횟수는 21회(56.8%)로 교과서 전체 분량이 줄어든 것에 비하여 크게 줄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그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농민·노동 운동에 ‘혁명’이라는 단어가 쓰인 횟수는 제7차의 3회(4.1%)에서 2011 개정에서는 10회(27.0%)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6차에서 유일한 ‘민주 혁명’의 지위를 차지했던 4·19가 보유한 ‘혁명’의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갔다. 제6차 교과서에서 서술한 31회의 ‘혁명’ 중, 4·19 혁명은 10회 등장하여 전체 빈도의 32.3%를 차지하였다.<sup>60)</sup> 그러나 제7차 교과서에서는 전체 ‘혁명’ 74회 중 12회 등장하여 비중은 16.2%로 감소하였고, 2011 개정 교과서에서는 37회 중 5회(13.5%)로 더욱 감소하였다.<sup>61)</sup>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전체적으로 4·19로 상징되는 ‘민주’ 혁명의 서사는 점차 줄어들고, 사회주의 단체명이 등장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제6차~2011 개정 교과서에서 ‘혁명’ 등장 횟수와 비율

	제6차		제7차		2011 개정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전체 ‘혁명’ 등장 횟수	31	100%	74	100%	37	100%
4·19	10	32.3%	12	16.2%	5	13.5%
세계사 사건	10	32.3%	22	29.7%	5	13.5%
사회주의 단체명	4	12.9%	25	33.8%	21	56.8%
(농민·노동운동 관련)	(0)	(0%)	(3)	(4.1%)	(10)	(27.0%)

60) 제6차 교과서에서 신진사대부와 관련된 ‘혁명’은 5회 등장하였다.

61) 특히 2011 개정 교과서에서는 4·19의 서술 분량 자체가 한 쪽 분량(p. 386)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정의 변천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국사의 목표 중에는 “역사의 발전 과정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새 문화 창조와 자유 민주주의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sup>62)</sup>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 국사<sup>63)</sup>와 근현대사의 목표에서는 직접적으로 민주주의와 관련한 서술이 제외되었다. 물론 제7차 교육과정 근현대사에서는 영역별 내용에서 “나아가 현대 사회는 경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의 신장 및 민족 통일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과정으로 인식한다”라고 서술하여 자유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sup>64)</sup>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과 같이 교과서 전체의 목표가 ‘민주’로 설정된 것은 아니었으며, 이에 따라 ‘민주’의 서사는 제6차 교육과정과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2011 개정 교육과정 또한 그 목표에서 직접적으로 민주주의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sup>65)</sup>

이처럼 교육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민주’의 서사를 주문하지 않게 되는 반면, 세계사 속에서 한국사를 강조하는 경향,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사를 교과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향이 합쳐지면서, 세계사의 혁명, 민주혁명,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각기 그 계통을 달리하는 세 종류의 ‘혁명’이 교과서에 혼재되어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6차 교육과정에서 한국사의 유일한 ‘혁명’을 4·19로 위치 지우고, 이를 강조하고자 했던 서사 구조는,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점점 희미해져 갔다.

62) 제6차 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2. 목표. …… 마. 역사의 발전 과정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새 문화 창조와 자유 민주주의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1992. 10. 30.), 「고등학교 교육과정(I)」, 5-2. 국사.

63)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1997. 12. 30.), 「사회과 교육 과정」, 2. 국사.

64)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1997. 12. 30.), 「사회과 교육 과정」, 7. 한국 근·현대사.

65)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2011. 8. 9.), 「사회과 교육 과정」, 3. 한국사.

## 6. 結語

교과서 속에서 ‘혁명’은 정권의 지향점과 맞닿아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제2차 교과서에서 동학 - 4·19 - 5·16의 서사를 통해 5·16을 ‘민주 혁명’의 서사의 완결점으로 구성하고자 했던 시도는, 유신 이후 신진사대부 혁명파 - 동학 - 5·16으로 이어지는 농민을 기반으로 하는 군인 혁명의 서사로 변화하였다. 더 이상 ‘혁명’과 ‘농민’을 자신의 서사로 활용할 수 없게 된 제4차 교과서에서는 ‘동학’이 혁명에서 제외되었고, 따라서 교과서에서 혁명은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제5차 교과서는 기존의 추세와, 민주화로 인한 민주주의의 강조가 엇갈리는 과도기적 성격이 보인다.

제6차 교과서에서는 4·19가 ‘혁명’으로 복귀하고, 5·16이 혁명에서 탈락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다만 제6차 교과서에서는 동학 - 4·19로 이어지는 70년대 학생운동 계열의 민주 혁명 서사의 구축에까지 이르지 못하였고, 4·19는 교과서 속에서 유일한 ‘혁명’으로써의 지위를 독점하였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정권의 정통성을 ‘혁명’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양상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제7차 교과서와 2011 개정 교과서에는 세계사 속의 여러 ‘혁명’과 사회주의 고유명사로써의 ‘혁명’이 대거 등장하였다. 더욱이 4·19는 ‘미완의 혁명’으로 정의되었다. 이에 따라 제2차 교과서 이래 이어져 온 ‘혁명’의 서사구조나, 유일무이한 ‘민주 혁명’으로써의 4·19와 같은 ‘혁명’의 위상은 상실되었다.

제2차 교과서의 우리의 사명에서 “우리는 민주 대한의 건설을 위하여 피를 흘렸고, 혁명을 거듭하는 시련과 고난을 겪었다”라고 규정한 이후 정권의 정체성과 맞닿아 한국사 교과서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했던 ‘혁명’의 서사는, 21세기 들어 점차 희미해져 갔다. 여전히 4·19는 ‘민주 혁명’으로써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분기로 설명되고 있지만, 더 이상 특

정한 흐름의 한 과정으로써 설명되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미완의 혁명’으로써, 세계사적인 ‘혁명’의 정의와 그 보조를 맞추고 있다. 교과서에서 ‘혁명’의 서사를 세움으로써 정통성을 담보하려고 했던 해방 이후의 많은 시도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교과서에서 ‘혁명’은 세계사 속의 사건으로써, ‘민주주의 혁명’으로써, 혹은 사회주의 계열의 사건으로써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용어로 재구축되었다. 이는 과거의 ‘혁명’ 서사의 상실이면서 동시에 극복이었다.

## 참고문헌

### 【자 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http://contents.history.go.kr>).

대통령기록연구실(<http://pa.go.kr>).

대통령공보비서관실(1967),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3집, 서울: 동아출판사.

박정희(1962), 『우리민족의 나갈 길』, 서울: 동아출판사.

홍이섭(1957), 『우리 나라 문화사(고등 국사)』.

문교부(1968), 고등학교 『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편(1996), 고등학교 『국사 (하)』.

\_\_\_\_\_ (1996), 고등학교 『국사 (상)』.

\_\_\_\_\_ (1990), 고등학교 『국사 (하)』.

\_\_\_\_\_ (1990), 고등학교 『국사 (상)』.

\_\_\_\_\_ (1982), 고등학교 『국사 (하)』.

\_\_\_\_\_ (1982), 고등학교 『국사 (상)』.

\_\_\_\_\_ (1979), 고등학교 『국사』.

국사편찬위원회, 국정도서편찬위원회 편(2006), 고등학교 『국사』.

김한중 외(2003),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김종수 외(2014), 고등학교 『한국사』, 금성출판사.

문교부령 제121호(1963. 2. 15.), 「고등학교 교육과정」, V. 국사 (문교부(1986),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1946~1981) 사회과·국사과』, p. 332).

문교부령 제350호(1974. 12. 31.), 「고등학교 교육과정」, VII. 국사 (문교부(1986),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1946~1981) 사회과·국사과』, p. 357).

문교부 고시 제442호(1981. 12. 31. 개정 고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국사과 (문

교부(1986),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1946~1981) 사회과·국사과』.

문교부(1986),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1946~1981) 사회과·국사과』.

문교부 고시 제88-7호(1988. 3. 31), 「고등학교 교육과정」, 3.국사과.

문교부(1989),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해설(문교부 고시 제88-7호(1988. 3. 31.))』.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1992. 10. 30.), 「고등학교 교육과정(Ⅰ)」, 5-2. 국사.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1997. 12. 30.), 「사회과 교육 과정」, 2. 국사.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1997. 12. 30.), 「사회과 교육 과정」, 7. 한국 근·현대사.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2011. 8. 9.), 「사회과 교육 과정」, 3. 한국사.

**【논 저】**

대한민국문교부·국사편찬위원회 편(1977), 『한국사 9: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탐구당.

아이케 불가스트 지음(2014), 라인하르트 코젤렉, 오토 브루너, 베르너 콘체 엮음, 백승중 옮김,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8: 개혁과 (종교) 개혁』, 서울: 푸른역사.

윤종영(1999), 『국사교과서 파동』, 서울: 해안.

강선주(2006), 「해방 이후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둘러싼 쟁점」, 『歷史教育』 97, 歷史教育硏究會.

권보드래(2015), 「1910년대 “혁명” - 3·1운동 전야의 개념과 용법을 중심으로」, 『개념과소통』 15, 한림과학원.

길윤미, 문경자(2014), 「‘혁명’의 개념 변화에 관한 고찰」, 『동서인문』 2,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김양식(2012),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역사교과서 서술 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동학학보』 24, 동학학회.

김영명(2017), 「4·19의 성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9, 한국정치외교사학회.

김태웅(2015), 「해방 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1894년 농민전쟁 서술의 변천」, 『歷史教育』133, 歷史教育硏究會.

노명식(1989), 「혁명의 개념」, 『서양사론』 33, 한국서양사학회.

류승렬(1996), 「해방 후 교육과정 변천과 역사교과서의 위치」, 『歷史教育』 60, 歷史教育硏究會.

서인원(2014), 「동학농민운동의 한국사 교과서 서술 내용 분석 — 제1차~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승실사학』 32, 승실사학회.

서중석(1997), 「1960년 4월 혁명 개념 소고」, 『성대사림』 12-13, 成均館大學校史學會.

오제연(2015),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과 대학생의 ‘동학농민전쟁’ 인식」,

- 『역사문제연구』 33, 역사문제연구소.
- 유용태(2014), 「역사교과서 속의 민주주의: 한중일 3국 비교」, 『歷史教育』 132, 歷史教育研究會.
- 이수용(1990), 「韓國近代 變革運動研究의 動向과 「국사」 教科書의 敍述」, 『歷史教育』 47, 歷史教育研究會.
- 조건(2017), 「제2차 교육과정기 민족주체성 교육의 시행과 국사교과서 근현대사 서술 내용 분석」, 『역사와교육』 24,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 조규태(201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동학·천도교 서술 검토」, 『동국사학』 51, 동국사학회.
- 조성운(2017), 「제2차 교육과정의 제정과 국사교과서의 편찬」, 『한국사학보』 66, 고려사학회.
- \_\_\_\_\_ (2015), 「반공주의적 한국사 교육의 성립과 강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_\_\_\_\_ (2014), 「2011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동학 농민운동 서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최경옥(2004), 「역사교육문제에 관한 신문보도의 양상과 여파: 1994년 ‘국사 준거안 파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상훈(2005), 「역사와 교육과정 60년의 변천과 진로」, 『사회과교육연구』 12-2,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허동현(2005),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개화기 관련 서술에 보이는 문제점과 제언 — 7차교육과정 「국사교육 내용 전개의 준거안」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허수(2018), 「언어 네트워크 연구를 통해 본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인식 — 내재적 발전론의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5-1, 서울대학교 교인문학연구원.

원고 접수일: 2018년 1월 10일

심사 완료일: 2018년 1월 31일

게재 확정일: 2018년 1월 31일



ABSTRACT

---

The Change of ‘Revolution’ Narratives  
in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Yoon, Hyun Sang\*

In the early South Korean textbooks, ‘revolution’ was a tool that reflected the orientation of the regime in the form of narratives. The early Park Chung-hee regime attempted to derive its legitimacy by establishing the narrative of ‘revolution’ which started from the Donghak Revolution and extended to the April Revolution (April 19) and the May 16 military coup, which was considered the culmination of the ‘democratic revolution.’ After the Yushin Constitution was adopted, the regime established their legitimacy through the narrative of the ‘military revolution,’ which stemmed from the revolutionaries of new sadaebu (士大夫) which led to the Donghak Revolution and the May 16 coup. The Chun Doo-hwan regime was unable to use ‘revolution’ as its narrative, and thus Donghak was exempted from the history of revolution and the revolution narrative faded away in textbooks.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was the first to recognize the April Revolution as the only ‘revolution.’ This was a sign of democratization, but was similar with the attempts made by previous regimes, since the new administration was also trying

---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derive its legitimacy from a ‘revolutio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marked a new beginning, as various revolutions that took place around the world and the term revolution in the socialist context also appeared in textbooks. The April Revolution was also defined as an ‘unfinished revolution.’ The appearance of various types of ‘revolutions’ led to the disappearance of the revolution narrative itself. The revolution narrative, which first appeared in textbooks published under the 2nd National Curriculum, was now lost. However, this also signified that ‘revolution’ was no longer a narrative for political reasons, but was coming closer to the meaning of ‘revolution’ in the context of world history.